

합평 '추사 박물관' 건립 무산 위기

군의회, 추사작품 기증 사례비 예산 15억 전액 삭감

작품 기증자 "매매 방식 전환 땀 타지역 판매 검토"

합평 '추사(秋史) 박물관' 건립이 무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추사 박물관 건립의 핵심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 확보 방식을 놓고 합평군과 군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합평군 200억원대의 추사작품 기증자는 이 같은 합평군과 군의회간 갈등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기증 철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합평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합평군이 요청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서 추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추사 김정희 작품 구입비 15억원

을 전액 삭감했다.

합평군의회는 이날 추사 박물관이 기증 받은 추사작품 69점을 35억원에 구매하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합평군은 추사작품 전체 기증 사례비로 35억원을 확정하고 최근 5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30억원은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억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합평군은 다만 지난 2010년 제정된 합평 군립미술관운영조례에 기증 사례비 상한액이 작품 평가액의 10%로 돼 있는 만큼 20억원의 기증 사례비로 하고, 조례 상한액을 넘어선 나머지 15억원은 작품 구입비로 지급하는 형태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월 일반행정위원회 통해 군의회에 설명하고 동의의 받았으나, 군의회에서 갑자기 전체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의회는 기증과 매매를 병행하는 방식은 사실상 '꼼수'인 만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작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평군은 작품 소장자인 안백순 이현 서에 관장의 의사를 존중해 구입 방법을 일부 변경했으며, 모든 기증 작품은 합평군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의회의 주장은 전형적인 '집행부 발목 잡기'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구입과 증여(기증)는 소유권을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점에서 의회가 형식적인 논리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관장은 또 작품 전체 매매계약은 고향발전을 바라는 자신의 뜻이 담겨있지 않은 행태라며 계약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관장은 앞서 최근 69점 외에도 11점을 추가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합평군 관계자는 "소장자가 200억원이 넘는 작품을 수십억원의 사례비만 받고 기증하는 것은 고향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면서 "안 관장측은 매매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엔 차라리 제값을 받고 타지역에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거점도 건립으로 폐교할 합평여중·고교 부지에 200억원을 투입해 추사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합평군은 엑스포공원과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kwangju.co.kr



유니버설발레단 29~30일

군산예술의전당은 "개관 3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를 오는 29일과 30일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니버설 발레단은 국립 발레단, 서울 발레단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발레단으로 불리며 명품군무와 솔리스트의 탄탄한 기량을 자랑한다.

특히 유니버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유니버설의 대표 레퍼토리아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여주인공이 뿜어내는 팔색조의

1인 2역, 신비로운 호수가 장면, 화려한 왕국 장면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주)국인산업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 티켓가격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으로 인터넷 예매는 티켓링크(1588-7890)와 금강방송(1544-5400)에서, 현장예매는 우리문고(063-445-0031), 동아서적(063-465-7388)에서 하면된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달 21일 배우 전원주, 심양홍, 이대호 등이 출연하는 부모님을 위한 악극 '꿈에 본 내고향'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읍성, 철쭉길 걸어보세요



청보리밭 축제 찾은 관광객에 또 다른 즐거움 선사

고창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고창읍성에 진홍빛 철쭉이 만개에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모양성'으로도 불리는 고창읍성 둘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진홍빛 철쭉이 '제1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는

게 고창군의 설명이다.

고창읍성은 1453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라도민들이 힘을 모아 축성한 자연석 성곽으로, 돌을 마리에 이고 성을 한바퀴 돌면 다윗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국락수천한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고창=고은석기자 ghs@

목포항 1·4분기 물동량 작년비 3.4%증가

올해 1·4분기 목포항의 물동량이 증가했다.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해수청)에 따르면 목포항의 1·4분기 물동량은 496만5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했다.

목포항 주력화물인 조선용 블록 화물 등 철재화물 증가가 물동량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조선용 블록화물은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올 들어 대형 조선용 블록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전년 대비 지난해 조선용 블록생산량 증가 폭은 3.8%(587만6000t~610만

4000t)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1분기 3개월 물량 증가폭만 17.5%(116만8000t~137만3000t)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용 블록과 함께 목포항의 2대 주력 화물인 수출차량은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감소폭이 1월 40%에서 2월 31.4%, 3월 15.8% 등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불황 및 국내 경기 침체로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차량 물량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점차 전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주 항공대대 조성공사 본격화

국방부, 이전사업 승인·통보... 행정절차 완료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방부가 지난 18일자로 항공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통보함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항공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현장사무실을 마련하고, 가도설치 등 기반을 갖춘 뒤 다음 달 중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주시의 전주 도도동 일대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 협의율은 22일 현재 74%이며, 지난 15일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면 92%의 토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순창군, 충청권 관광객 유치 시동

코레일 충남본부와 업무협약

문화관광 콘텐츠·여행 상품 개발

순창군이 대전 충남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순창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창군 관광자원이 낮은 대전과 충남지역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레일 대전 충남본부는 코레일 역사 등을 활용에 대전·충남지역에 순창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철도여행 상품 개발에 참여한다. 순창군은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철도여행과 연계한 여행상품에 대한 운영지원을 맡는다. /순창=서은종기자 syj@kwangju.co.kr

순창군은 이번 업무협약이 그동안 수도권과 호남, 부산·경남지역에 집중됐던 관광객들의 방문을 넓혀 순창이 전국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협약식에서 "순창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감천산을 비롯한 섬진강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다양한 기차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대전 충남 지역 관광객 유치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권영석 본부장은 "최근 기차를 통한 다양한 국내 관광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기차여행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순창 지역은 고추장과 깨끗한 자연환경 등 강점이 많은 만큼 여행상품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순창=서은종기자 syj@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 주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식당, 커피숍(전주(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3억3천만원
4. 나주시 송촌동 신축주택 대지596㎡ 건물85㎡ 남향 텃밭있음 동시대인근 매2억1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서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2억
6.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주택3층 교통편리 매7억원

농 지 / 임 야

1.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담 6,579㎡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매4억8천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4,007㎡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혁신도시인근 매9억7천만원
3.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 도로접 매7억원
4. 나주시 산포면 등성리 3,015㎡ 4차선도로변 생산관리지역 판매시설 공장 창고적합 매6억4천만원
5.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7,273㎡ 혁신도시근거리 보전 관리지역 연수원 공장적합 투자유망 매8억5천만원
6.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일반임야 18,838㎡ 2차선도로변 농림 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22억원
7. 나주시 금천면 외곡리 담 4,807㎡ 생산관리지역 농로양호 투자유망 매1억6천만원
8. 나주시 금천면 신전리 담 8,825㎡ 매2억8천만원
9.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배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10. 나주시 봉황면 용전리 담2,170㎡ 2차선 도로변 농업용 창고 적합 매7천2백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장흥군 안평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 순창군 북동면사무소 부근 대지 991㎡ 전원생활적합 40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외우리 6000㎡ 생고부근 1억2천
- 담양군 남면 만월리산 11883㎡ 위치·전망좋은 2억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주거지 2216㎡ 투자성 좋은 6천만원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3005㎡ 전원생활용 적합 4500만원

투자 · 매도 · 교환

- 차고지 공장 창고 적합 광산구 유수 호철 부근 1446㎡ 1억6천
- 월산동 보라리(매) 부근 2층 주택 대지 162㎡ 건물 150㎡ 1억4천
- 기족면지 적합 화순 도원면 창창리 496㎡ 매도 2200만원
- 광산구 장수동 자연복지 공장·창고적합 1702㎡ 2억5천
- 무안군 망운면 옥서리 자연복지 2238㎡ 대출매 매도 7300만원
- 단종주택월산동 보라리(매) 부근 대지 109㎡ 건물 59㎡ 8300만원
- 상가주택 월산동 동시대 병원대 대지 187㎡ 건물 170㎡ 1억5천
- 월산동 농성초 옆문 건너편 땅 131㎡ 건물 174㎡ 1억9천
- 진도군 고교면 백포리산 16860㎡ 염소사육용 적합 3500만원
- 무안군 망운면 사무소 인근 국도접 전 1312㎡ 다용도 8500만원
- 담양군 광주경계 가든 땅 2394㎡ 가든은 운영중임 6억7천
- 사철적합 곡성군 옥서동 땅 4989㎡ 2층 빌딩과 창고등 있음 2억6천
- 창고·식당용 북구 장동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 2216㎡ 3억5천

상가건물

- 남구 월산동 농성초교부근 대지 136㎡ 3층건물 198㎡ 매도 2억2천
- 순창군 북동면 대지 662㎡ 3층건물 495㎡ 요양시설등 적합 은행 1억 5천 매도 2억2천 인수액 7천만원
- 월산동 병원적합 대지 331㎡ 건물780㎡ 4층건물 7억2천
- 월산동 문진각 부근 미당이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 해서 식당으로 적합 대지 222㎡ 건물 131㎡ 은행 1억 매도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로 건너 대지 117㎡ 건물 74㎡ 1억2천
- 전대 정문부근 신축 월물·상가 대지 166㎡ 건물 344㎡ 은행 1억5천 보증금 1억5천 월 381만원 매도 6억8천
- 신축빌딩 창성군 진원면 땅 1201㎡ 주택 112㎡ 3억2천
- 쌍촌역 부근 신축건물 대지 298㎡ 건물 567㎡ 원룸8 루트10 인접은 주인이 살고 전세 2억3천 월 265 매도 8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나주시 경현동 지하층~지상3층근린시설 토지450평 요양병원추천 ▶ 감정가 31억 최저가 11억(감정가의36%)
- 화순군 도곡면 전 359평 도로접 도곡농공단지 맞은편 창고용지 소방도로접 ▶ 거래가 4천5백만원
- 나주시 경현동 담555평 포장도로접 다목적 이용가능 주변환경좋은. 음식점,전원주택추천 ▶ 거래가 2억1천만원
- 북구 충효동 전360평 주변환경 좋은 투자가치높음 전원주택지 적합 투자가치 ▶ 거래가 3천3백만원
- 북구 연제동 근린시설지하층~3층 연세현대아파트부근 도로접 사무실추천 ▶ 감정가5억2천 최저가3억7천만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전북 김제시 옥산동 2층무인텔 건물579평 대지600평 객실20개 현재운영중 ▶ 감정가 27억 최저가 12억원
- 북구 풍향동 원룸 3층건물101평 대지47평 교육대인근 수익물건 ▶ 감정가 2억4천 최저가 1억7천만원
- 화순군 동면 건 449평 토지2,070평 전원주택부지추천 도로접 마을입구 ▶ 감정가 13억2천 최저가 4억4천만원
- 서구 양동 건물425평 대지175평 숙박시설 방40개 지하층~지상5층 ▶ 감정가11억 최저가6억(감정가의56%)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오피스텔 매매

(여수 둔덕동 전남대와 성심병원 중간)

토지: 549㎡(166평) 건물: 2,510㎡(759평)

18층 주차장
2층 상가 (110평 대형 세탁소 운영중)
3층~7층 (원룸 4개 스킨케어 2개)
8층 36평형 아파트 2개 (각 방 3, 거실, 배란다, 텃밭)

용 8억 (금리3.3%)
보 7천 / 실투자 6억 8천

□ 월 세 → 1,450만
□ 매매가 → 15억5천

● 6억8천 투자하고 8층 36평 아파트에서 야경과 조망권 좋은곳에 살면서 매월 월세 1,000만원 수익발생
● 세금 면제 (1가구 1주택일 경우 세금 면제)
● 사택으로 사용가능 (회사나 개인 사무에서 구입 직원 복지 차원으로 사용)
● 게스트 하우스 사용가능 (여름 성수기 및 주말 여수를 찾는 여행객 숙소 부족)

주인직거래 010-3684-3886